

경산지역 대학생의 흡연, 음주 및 식행동에 관한 조사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Dietary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the Kyungsan Area

대구의대학교 식품조리영양학과
조교수 양경미
교수 박찬성
창신대학 피부미용과
전임강사 장정현

Department of Cooking & Nutrition, DaeguHanny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Kyung-Mi Yang

Professor : Chan-Sung Park

Department of Cosmetology, ChangShin College

Full-time Lecturer : Jung-Hyun Jang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고찰

I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Alcohol has as much effect on our lives as the different taste for foods that people have all of the world. Recently, the interest about drinking habits has increased with the rise in health problems for college students with poor health related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lcohol consumption, smoking and eat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the Kyungsan area. This survey was administer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the subjects were 177 male and 189 female college students.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questions concerning social-demographic factors, general characteristics, cigarett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eating behavior. The data were analyzed by χ^2 -test and t-test.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almost of all of the survey subjects drank alcohol. The mean alcohol

consumption level per day for male students ($33.9 \pm 29.7g$)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for the female students ($18.5 \pm 16.5g$), and more than 39.6% of the subjects drank alcohol 1-3 days a week. Alcohol consumption changed the students eating habits. Most students had dietary problems such as fast eating, skipping meal and spending too much money on fast food. The survey about eating behavior of the students showed the male students had more problems when compared with female students. Alcohol consumption levels and alcohol depende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moking cigarettes ($r=0.386$, $p<0.001$).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eating behavior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kipping meals ($r=-0.121$, $p<0.001$).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s with overeating when students were depressed ($r=0.130$, $p<0.05$), with eating meals when watching TV or videos ($r=0.085$) and with spending money on fast food($r=0.235$, $p<0.235$).

The results indicate that health relate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the present study were fairly good.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college students and their habits of skipping meal, alcohol drinking and smoking, and the fairly good students can act as a model for correct dietary behavior so as to improve overall student health.

주제어(Key Words): 대학생(college student), 흡연(smoking), 음주(drinking), 식행동(dietary behavior)

I. 서론

대학생활은 부모나 교사와 같은 주위 가까운 사람들의 보호에서 벗어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 자발적인 생활을 처음으로 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생활 중 식생활이나 음주, 흡연,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은 중년에 이르렀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여러가지 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불규칙한 식사시간, 높은 결식률, 부적절한 간식,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특정 영양소의 결핍과 빈혈, 위장장애, 변비와 같은 건강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류은순, 1993; 이미숙, 우미경, 1998). 또한 사회문화의 발달과 복잡성,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향락주의가 만연해지면서 무질서한 흡연과 음주문화가 대학내에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 보고(2000)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연령에 해당하는 20-29세의 음주인구 비율은 1992년도 64.6%에서 1999년도에는 75.9%로 크게 증가되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음주 문제와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조성진, 서국희, 남정자, 서동우, 조맹제, 1998; 김용석, 1999)에 의하면 성인 중 4.2-10.9%는 알코올 의존상태에 있으며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 남용을 포함한 알코올 사용장애나 알코올 문제를 가진 인구비율이 22.0-

32.2%에 달한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 음주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물론 알코올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긴장감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등 인간생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기도 한다. 반면에 지나친 음주는 범죄와 교통사고 문제나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악이 되기도 한다(김운주, 1986). 건강상에 있어서 알코올은 체내에 직접적으로 독성작용을 하는 것 이외에도 식이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영양과 건강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다. 주로 만성적인 음주는 소화관내 점막에 상처를 일으켜서 소화 및 영양소 흡수를 저하시킨다(김영란, 1999). 또한 알코올은 공열량식품(empty calorie food)으로 작용하여 식사를 감소시켜 저체중과 영양결핍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은 술안주의 과잉 섭취로 비만과 각종 잘못된 생활습관 병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다(전예숙, 최미경, 김미현, 2002). 그리고 김명희, 유옥순(1995)과 최면, 김종대, 김성실(1996)의 보고를 보면 알코올 섭취자들은 비알코올 섭취자들에 비하여 아침 결식율이 높고 식사도 불

규칙적으로 하며 식태도에 있어서도 낮은 점수를 보임에 따라서 식행동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흡연은 우리나라 상위 10대 질병을 일으키는 주 위험요인으로서 좋지 못한 식습관 동시에 음주를 할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상승제 역할을 하며(이성숙, 1996), Freeman & Packard(1995)는 흡연이 신체활동 및 생활습관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관상동맥질환을 일으키는 간접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2001년 우리나라 20-29세 남자 흡연율은 77.3%, 여자는 5.3%로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 각종 발암물질이 함유된 담배가 지나칠 때 미각의 저하나 유해물질로 각종 암을 일으키게 되는데 알코올과 담배를 동시에 접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게 작용한다. 최면, 김종대, 김성실(1996)은 뇌졸중 환자군이 정상군 보다 흡연량과 함께 알코올 섭취량도 높았으며, 또한 최미경, 전예숙, 김애정(2001)의 보고에서도 흡연 대학생의 알코올 섭취빈도가 비흡연 대학생보다 높다고 하여 금주와 흡연의 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음주, 흡연 그리고 불안정한 식생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은 건강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산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의 흡연, 음주 그리고 식행동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흡연과 음주에 대한 올바른 교육지도와 식사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경산 지역에 거주하는 남자 대학생 177명과 여자 대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목적, 기록지 작성 요령 및 작성실례를 설명한 후 조사대상자가 자가 기록법으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기입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되었고 기록 후에 즉시 회수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지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일반적 환경, 음주와 흡연 그리고 식생활 행동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개발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조사는 주로 부모님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이나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가족구성원 수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일반적 환경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학년, 월 평균 용돈, 부모님과 동거여부 그리고 정서적인 면이나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음주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음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인으로 부모님의 음주 여부와 버릇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음주량, 음주빈도, 음주동기, 음주 행동, 알코올 의존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음주력을 근거로 한 음주량 산출에서는 소주는 1홉(180ml)을 알코올 45g, 막걸리는 1되(1,800ml) 144g, 맥주는 1병(640ml)을 25.6g, 청주는 1되(1,800ml)를 288g, 양주는 1병(760ml)을 330g으로 환산하였으며 일일 평균 음주량은 주간 섭취량을 구한 다음 7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내었다. 알코올 의존증 진단은 김경빈, 한광수, 이정국, 이민규, 김유광, 김철규(1991)가 개발한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Alcoholism Screening Test of Seoul National Hospital : NAST)지를 이용하였다. 결과는 12개 항목 중 그렇다고 대답한 횟수가 4개 이상일 경우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리고 음주와 관련하여 흡연량과 동기, 니코틴 의존도에 대한 검사 그리고 식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하여 하루 식사 섭취빈도, 식사량, 식사속도, 밤참 횟수, 패스트 푸드 이용 정도나 용돈 중 간식비의 비율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 자료의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환경 등 기본적인 자료 처리는 항목별 단순빈도

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니코틴 의존도와 음주량 및 알코올 의존도 점수는 평균치와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남녀 각 변인들간의 비교·분석은 t-test와 χ^2 -test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음주, 흡연 그리고 식행동의 상관성을 위해 각 변수간에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r)를 구한 뒤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사회인구학적 조사

전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조사와 관련된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빈도수와 비율은 <표 1>과 같다. 부모님의 연령은 40대와 50대가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7% 정도는 부모 중 한 분이 안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부분으로 대학교 이상 학력자는 아버지가 24.6%, 어머니가 11.5%로 아버지가 어머니 보다 학력이 더 높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노무 및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 사무직에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경우는 50% 정도가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직업의 종류로는 판매 및 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였다. 월 평균 수입은 101만원에서 180만원이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29.3%가 181-230만원, 20.2%가 230만원 이상을 받고 있었다. 동거인 수는 3-4명이 53.6%로 가장 많아서 핵가족 추세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환경에 관한 조사

전체 조사대상자의 학년별 구성 비율은 1학년 35%, 2학년 24.9%, 3학년 23.8%, 4학년 5.8%로 정도였고, 남녀 학년 구성비율 비교 결과 1-3학년 사이는 비슷하였으나 4학년은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표 2>). 월 평균 용돈은 52.1%가 11-20만원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10%는 1-5만원, 26%는 6-10만원, 21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학생도 23.2%를 차지하였고 용돈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많았다. 동거자로 부모와 함께 하는 경우(54.1%)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자취나 하숙 생활(28.0%), 혼자 혹은 양친 중 한분(17.2%)과 같이 한다는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생활의 만족도는 보통 혹은 그 이상 수준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율이 63.9%로 높았으며, 급우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친구나 아니면 몇몇의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족의 화목도에 대한 질문에는 아주 화목하게 지낸다는 응답이 단연 많았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도 아주 민주적이면서 수용적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는다는 느낌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도 각각 54.1%, 52.7%로 아주 혹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3. 흡연과 관련된 조사

<표 3>에서 처럼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 흡연율이 69.5%, 여학생은 9.0%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현저하게 높았다($p<0.001$). 1986년 이후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기대 수준 상승으로 세계적으로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Steven & Lewayne, 1986)이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껌껌 조사결과에서는 남자 응답자의 70.2%가 흡연을 하며 흡연자의 83%가 1갑 이하를 피운다고 보고한 결과(이기완, 이영미, 1995)와 비슷하게 본 연구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성 흡연율이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증가하며 그 시작 연령도 낮아진다는데 있다. 우리나라 1980년대 여대생의 흡연율 조사에서는 흡연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송미숙, 1987)되었으나,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여학생 흡연율이 9%라는 결과도 여성 흡연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여학생 흡연율 증가는 여성이 가족건강 및 2세 건강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송미숙, 1987). 일본의 경우 흡연 여성은

<표 1> 전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남학생		여학생		전 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연 령	40대	70(39.5)	107(60.5)	96(50.8)	141(74.6)	166(45.5)	248(67.8)
	50대	90(50.8)	58(32.8)	82(43.4)	33(17.5)	172(47.0)	91(24.9)
	60대 이상	13(7.3)	5(2.7)	5(2.6)	6(3.2)	18(4.0)	11(3.0)
	안계심	4(2.2)	7(4.0)	6(3.2)	9(4.7)	10(2.6)	16(4.3)
학 령	무 학	2(1.1)	5(2.8)	3(1.6)	2(1.1)	5(1.4)	7(1.9)
	국 졸	18(10.2)	27(15.3)	13(6.9)	25(13.2)	31(8.5)	52(14.2)
	중 졸	20(11.3)	31(17.5)	19(10.1)	25(13.2)	39(10.7)	57(15.6)
	고 졸	96(54.2)	89(50.3)	94(49.7)	93(49.2)	190(51.9)	182(49.7)
	대 졸	31(17.5)	15(8.5)	43(22.8)	23(12.7)	74(20.2)	38(10.4)
	대학원졸	6(3.4)	1(0.6)	10(5.3)	3(1.6)	16(4.4)	4(1.1)
	무응답	4(2.0)	9(5.0)	7(3.6)	17(9.0)	11(3.0)	26(7.1)
직업종류	노무 및 기술직	44(24.9)	11(6.2)	48(25.4)	25(13.2)	92(25.1)	36(9.8)
	판매 및 서비스	39(22.0)	30(16.9)	36(19.0)	32(16.9)	75(20.5)	62(16.9)
	사무직	37(20.9)	12(6.8)	51(27.0)	7(3.7)	88(24.0)	19(5.2)
	관리직	14(7.9)	1(0.6)	14(7.5)	0(0)	28(7.7)	1(0.3)
	전문직	10(5.6)	2(1.1)	7(3.7)	7(3.7)	17(4.6)	9(2.5)
	무직	8(4.5)	98(55.4)	2(1.1)	88(46.6)	10(2.7)	186(50.8)
	기타	19(10.7)	13(7.3)	23(12.2)	13(6.9)	42(11.6)	26(7.1)
	무응답	6(3.5)	10(5.7)	8(4.1)	17(9.0)	14(3.8)	27(7.4)
		177(100)		189(100)		366(100)	
경제적수준	100만원 이하	9(5.1)		3(1.6)		11(3.0)	
	101-180만원	75(42.4)		86(45.5)		161(44.0)	
	181-230만원	50(28.2)		57(30.2)		107(29.2)	
	230만원 이상	39(22.0)		35(18.5)		74(20.2)	
	무응답	4(2.3)		8(4.2)		13(3.6)	
가족수	1-2인	1(0.6)		3(1.6)		4(1.1)	
	3-4인	124(70.1)		72(38.1)		196(53.6)	
	5인 이상	50(28.2)		68(36.0)		118(32.2)	
	무응답	2(1.1)		46(24.3)		48(13.1)	
주거형태	단독주택	69(39.0)		87(46.0)		156(42.6)	
	상가	15(8.5)		17(9.0)		32(8.7)	
	연립	15(8.5)		12(6.3)		27(7.4)	
	아파트	77(43.4)		72(38.2)		149(40.7)	
	무응답	1(0.6)		1(0.5)		2(0.6)	
전 체		177(100)		189(100)		366(100)	

전 여성의 17.7%이고 학력이 낮으며 기혼자이고 임신희수나 사산희수가 증가할수록 여성 흡연율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송미숙, 1987).

본 연구 조사대상자 중 흡연자의 상습적 흡연은 남학생의 경우 10.8% 정도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시작하였고, 나머지 대다수가 중·고등학교때 부

〈표 2〉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환경 특성

N(%)

		남 학생	여 학생	전 체
학년	1 학년	69(39.0)	59(31.2)	128(35.0)
	2 학년	52(29.4)	39(20.6)	91(24.9)
	3 학년	39(22.0)	48(25.4)	87(23.8)
	4 학년	16(9.0)	42(22.3)	58(15.8)
	무응답	1(.6)	1(.5)	2(.5)
월 평균 용돈(만원)	1-5 만원	15(8.5)	20(10.6)	35(9.6)
	6-10 만원	9(5.1)	37(19.6)	46(12.6)
	11-15 만원	53(29.9)	39(20.6)	92(25.1)
	16-20 만원	50(28.2)	49(26.0)	99(27.0)
	21 만원 이상	45(25.5)	40(21.1)	85(23.2)
	무응답	5(2.8)	4(2.1)	9(2.5)
부모님과 동거여부	양친	96(54.2)	102(54.0)	198(54.1)
	아버지만	2(1.1)	7(3.7)	9(2.5)
	어머니만	3(1.7)	4(2.1)	7(1.9)
	혼자	25(14.1)	22(11.6)	47(12.8)
	자취나 하숙	49(27.8)	52(27.5)	101(27.6)
	무응답	2(1.1)	2(1.1)	4(1.1)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함	20(11.3)	17(9.0)	37(10.1)
	보통	90(50.8)	107(56.6)	197(53.8)
	그저 그렇다	65(36.8)	64(33.9)	129(35.3)
	무응답	2(1.1)	1(.5)	3(.8)
급우와의 관계	모두 잘 지냄	83(46.9)	80(42.3)	163(44.5)
	몇 명과 만	87(49.1)	104(55.0)	191(52.2)
	없다	4(2.3)	4(2.2)	8(2.2)
	무응답	3(1.7)	1(.5)	4(1.1)
가족의 화목도	그저 그렇다	8(4.5)	10(5.3)	18(4.9)
	보통이다	66(37.3)	54(28.6)	120(32.9)
	만족한다	102(57.6)	124(65.6)	226(61.7)
	무응답	1(.6)	1(.5)	2(.5)
부모의 양육태도	민주적·수용적	171(96.6)	182(96.3)	353(96.5)
	거부적·무관심	4(2.3)	6(3.2)	10(2.7)
	무응답	2(1.1)	1(.5)	3(.8)
사랑받는 다는 느낌	아주	21(11.8)	37(19.6)	58(15.8)
	대체로	98(55.4)	100(52.9)	198(54.1)
	그저 그렇다	57(32.2)	48(25.4)	105(28.7)
	전혀	1(.6)	4(2.1)	5(1.4)
삶에 대한 만족도	아주	15(8.4)	11(5.8)	26(7.1)
	대체로	77(43.5)	90(47.6)	167(45.6)
	그저 그렇다	77(43.5)	74(39.2)	151(41.3)
	전혀	7(4.0)	13(6.9)	20(5.5)
	무응답	1(.6)	1(.5)	2(.5)
전 체		177(100)	189(100)	366(100)

〈표 3〉 전체 조사대상자 중 흡연자의 흡연력에 관한 분석

N(%)

		남 학생	여 학생	전 체	χ^2 -value
흡연 여부	예	123(69.5)	17(9.0)	140(38.3)	83.4***
	아니오	52(29.4)	171(90.5)	223(60.9)	
	무응답	2(1.1)	1(.5)	3(.8)	
전 체		177(100)	189(100)	366(100)	
상습적 흡연시작	초등학교	13(10.8)	0(0)	13(9.3)	2.78
	중학교	30(25.0)	5(29.4)	35(25.0)	
	고등학교	44(34.7)	6(35.3)	50(35.7)	
	대학교	22(18.3)	5(29.4)	27(19.3)	
	무응답	14(11.2)	1(5.9)	15(10.7)	
흡연 동기	호기심	45(37.5)	7(41.2)	52(37.1)	31.0***
	친구권유	21(17.5)	3(17.6)	24(17.1)	
	선배권유	2(1.7)	0(0)	2(1.4)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10(8.3)	3(17.6)	13(9.3)	
	어른처럼 보이려고	2(1.7)	2(11.8)	4(2.9)	
	기타	10(8.3)	2(11.8)	12(8.6)	
무응답		33(25.0)	0(0)	33(23.6)	
흡연이 태어나 피부에 미치는 영향	매우 그렇다	59(49.2)	9(52.9)	68(48.6)	3.72
	그렇다	36(27.5)	8(47.1)	44(31.5)	
	잘 모르겠다	10(8.3)	0(0)	10(7.1)	
	그렇지 않다	8(6.7)	0(0)	8(5.7)	
	매우 그렇지 않다	0(0)	0(0)	0(0)	
무응답		10(8.3)	0(0)	10(7.1)	
흡연 후 건강상태	좋아졌다	0(0)	2(11.8)	2(1.4)	21.48***
	전과 똑같다	4(3.3)	3(17.6)	7(5.0)	
	나빠졌다	103(83.7)	11(64.7)	114(81.4)	
	잘 모르겠다	14(11.3)	1(5.9)	15(10.8)	
	무응답	2(1.7)	0(.0)	2(1.4)	
흡연 후 체중변화	변화 없음	81(67.5)	11(64.7)	92(65.7)	.94
	감소	33(26.8)	4(23.5)	37(26.4)	
	증가	7(5.7)	2(11.8)	9(7.9)	
여성 흡연에 대한 견해	좋다	2(1.7)	1(5.9)	3(2.1)	21.55***
	괜찮다	41(31.6)	15(88.2)	56(40.0)	
	나쁘다	80(66.7)	1(5.9)	81(57.9)	
전 체		123(100)	17(100)	140(100)	

***p<.001

터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반면에 여 학생은 흡연 시작 시기가 중·고·대학교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 결과(김경희, 최삼섭, 1979)에 의하면 상습적 흡연 시작 시기는 우리나라

남자는 18-19세, 미국 남녀 모두는 16세로 보고 되었고 연령이 증가 할수록 흡연량도 같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 중 흡연자가 흡연을 시작하게 된 주 동기는 호기심 이었고

그 다음이 친구의 권유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흡연자의 흡연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흡연이 태아나 피부에 미치는 영향, 건강과의 관련성, 흡연으로 인한 체중변화, 그리고 여성 흡연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 중 흡연자의 흡연이 태아나 피부에 76.5%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흡연 후 나타나는 건강상태가 해롭다고 대답한 경우가 흡연자의 81.2%로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남녀 차이를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경향은 남학생이 유의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p<0.001$). 본 연구 결과는 건강에는 해로우나 긴장해소에는 도움이 된다고 40.8%가 응답하고 있어 흡연에 대해 많은 학생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송미숙(1987)의 보고와는 다른 경향이었다. 흡연자 중에서 흡연 후 나타나는 체중 변화에 대해서 조사대상자 중 65.7%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에 26.4%는 감소를 보였다고 하였다. 여성 흡연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도 유의적($p<0.001$)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흡연자에 대한 니코틴 의존도 검사 분석 결과인 <표 4>에서 살펴보면, 여학생이 무응답을 많이 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은 아직까지 여학생 흡연이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남학생의 26.0%, 여학생의 18.6%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의외로 여학생이 더 힘이 든다는 유의적인($p<0.001$) 대답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피우는 담배가 하루 중 가장 맛있다는 응답자가 여학생에게서 단연 높았으며, 흡연량은 오전보다도 오후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일 평균 흡연량은 흡연자의 38.6%가 10-20가치였으며 몸이 아파도 담배를 피우는 질문에 조사대상자 25.7%가 '예', 52.2%가 '아니오'라는 답을 하였다.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는 <표 4>의 8개 항목의 답을 점수화하여 합한 다음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은 평균 3.99 ± 0.96 점이고 여학생은 3.75 ± 1.34 점으로 두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

러나 <표 5>에서 처럼 조사대상자 전체의 76.4%가 니코틴에 대한 의존도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낮아서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력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어렵지 않게 담배를 끊을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8.6% 정도는 보통의 니코틴 의존도를 보여서 적절한 금연법을 배우지 않고는 담배를 끊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4. 음주와 관련된 조사

<그림 1>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음주 섭취량에 대한 분포도이다. 조사대상자 366명의 음주율은 95.9%로 나타났고, 이 중 남학생에서는 172명(97.2%), 여학생에서는 179명(94.7%)로 한국대학생 알코올문제 예방협회의 음주를 조사결과인 93% 보다도 높았다. 우리나라의 음주율은 남자는 학력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졸 이하 여성의 12%만이 술을 마시는 반면 중졸은 14.9%, 고졸은 23.1%, 대졸은 28.1%의 음주율을 나타낸다고 김준숙, 안성순, 김인숙(1995)은 보고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하루 평균 알코올 섭취량은 남학생의 경우 최저 1.3g에서 최고 191.0g까지 평균 33.9 ± 29.7 g 섭취하였고, 여학생은 최저 1.3g에서 최고 110.0g으로 평균 섭취량이 18.5 ± 16.5 g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p<0.001$) 많이 마셨다.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하루 음주량은 56g으로 소주 5.5잔에 해당하며 여성에서는 12g으로 소주 약 1잔에 해당하는 양으로 보고(최은영, 임영신, 김규남, 박정용, 김현주, 조비룡, 이성희, 유태우, 허봉렬, 1998)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여학생의 경우 평균 섭취량이상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알코올 섭취량에 대한 분포는 최은영, 임영신, 김규남, 박정용, 김현주, 조비룡, 이성희, 유태우, 허봉렬(1998)은 하루 30g이상의 에탄올 섭취시 고음주자로 하루 20g 이하는 적정음주자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도 이에 준하여 음주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적정알코올을 섭취하는 남학생이 33.3%, 여학생이 58.2%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고음주자가 남학생의

<표 4>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에 관한 분석

N(%)

		남 학생	여 학생	전 체	χ^2 -value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30 분 이내	32(26.0)	3(17.6)	35(25)	0.58
	30 분 이후	65(52.9)	4(23.6)	69(49.3)	
	무응답	26(21.1)	10(58.8)	36(25.7)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참기가 힘들습니까?	예	16(13.0)	7(41.2)	23(16.4)	23.95***
	아니오	89(72.4)	1(5.9)	90(64.3)	
	무응답	18(14.6)	9(52.9)	27(19.3)	
하루 중 제일 맛있는 담배는?	아침 첫 담배	25(20.4)	5(29.4)	30(21.4)	9.07*
	그 외의 담배	72(58.5)	1(5.9)	73(52.1)	
	무응답	26(21.1)	11(64.7)	37(26.5)	
하루에 보통 몇 개피나 피우십니까?	15 개비 이하	34(27.6)	5(29.4)	39(27.9)	1.87
	16-25 개비	63(51.3)	4(23.5)	67(47.9)	
	26 개비 이상	3(2.4)	0(0)	3(2.1)	
	무응답	23(18.7)	8(47.1)	31(22.1)	
하루 중 다른 때보다 아침나절에 담배를 더 자주 피우십니까?	예	11(8.9)	1(5.9)	12(8.6)	.001
	아니오	88(71.6)	8(47.1)	96(68.5)	
	무응답	24(19.5)	8(47.1)	32(22.9)	
몸이 너무 아파 누워 있을 때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예	32(26.0)	4(23.5)	36(25.7)	.31
	아니오	67(54.5)	6(35.3)	73(52.2)	
	무응답	24(19.5)	7(41.2)	31(22.1)	
피우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적다	23(18.7)	5(29.4)	28(20.0)	8.35*
	중간 정도	78(63.4)	5(29.4)	83(59.3)	
	많다	17(13.8)	6(35.3)	23(16.4)	
	무응답	5(4.1)	1(5.9)	6(4.3)	
담배를 피울 때 담배 연기를 자주 들여 마십니까?	전혀	0(0)	2(0)	2(1.4)	22.5***
	가끔씩	40(32.5)	10(58.8)	50(35.7)	
	항상	73(59.4)	3(17.6)	76(54.3)	
	무응답	10(8.1)	2(11.8)	12(8.6)	
전 체		123(100)	17(100)	140(100)	

*p<.05 ***p<.001

<표 5> 흡연자의 니코틴 의존도 점수 결과 N(%)

	남 학생	여 학생	전 체
의존도 점수	3.99±0.96	3.75±1.34 ^{1)NS}	
낮은 의존도(0-4점)	96(78.0)	11(64.5)	107(76.4)
보통 의존도(5-7점)	21(17.1)	5(29.6)	26(18.6)
심한 의존도(9-11점)	0(0)	0(0)	0(0)
무응답	6(4.9)	1(5.9)	7(5.0)
전 체	123(100)	17(100)	140(100)

1) 평균±표준편차
NS : Not Significant

경우 44.6%, 여학생에서도 14.8%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Davidson(1989)과 최은영, 임영신, 김규남, 박정용, 김현주, 조비룡, 이성희, 유태우, 허봉렬(1998)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 30g이상 섭취하는 고도음주자는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음주자에 대한 음주력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 음주 경험은 65.3%의 조사대상자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고, 1

〈표 6〉 음주자의 음주력에 관한 분석

N(%)

		남 학생	여 학생	전 체	χ^2 -value
첫 음주경험 시기	초등학교	20(11.3)	10(5.3)	30(8.2)	18.45*
	중학교	36(20.4)	41(21.7)	77(21.0)	
	고등학교	88(49.7)	74(39.2)	162(44.3)	
	대학 1학년	30(16.9)	44(23.3)	74(20.2)	
	이후	3(1.7)	7(3.7)	10(2.7)	
	무응답	0(0)	13(6.8)	13(3.6)	
음주빈도	매일	3(1.7)	2(1.1)	5(1.4)	39.97***
	2-3일에 1회	31(17.5)	10(5.3)	41(11.2)	
	4-5일에 1회	58(32.8)	34(18.0)	92(25.1)	
	1주일에 1회	7(4.0)	5(2.6)	12(3.3)	
	한달에 1-2회	73(41.2)	128(67.7)	201(54.9)	
	안 마심	5(2.8)	10(5.3)	15(4.1)	
음주동기	호기심	22(12.4)	11(5.8)	33(9.0)	29.1**
	친구·선배권유	33(18.6)	29(15.3)	62(16.9)	
	스트레스해소	11(6.2)	9(4.8)	20(5.5)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68(38.6)	63(33.3)	131(35.8)	
	집안 행사	19(10.7)	12(6.3)	31(8.5)	
	개인적 기념행사	19(10.7)	49(25.9)	68(18.6)	
	기타	5(2.8)	16(8.6)	21(5.7)	
과음 횟수	없음	81(45.7)	113(59.8)	194(53.0)	17.45*
	1년 3회 이내	70(39.5)	59(31.3)	129(35.2)	
	3개월에 1-3회	20(11.4)	7(3.7)	27(7.4)	
	1개월에 1-3회	6(3.4)	1(0.5)	7(1.9)	
	주 1회 이상	0(0)	1(0.5)	1(0.3)	
	무응답	0(0)	8(4.2)	8(2.2)	
음주 후 나타나는 신체행동 변화	감정의 변화	40(22.6)	78(41.3)	118(32.2)	30.31**
	안정감과 편안함	54(30.5)	24(12.7)	78(21.3)	
	격양판단에 지장	25(14.2)	27(14.3)	52(14.2)	
	움직임의 둔화	48(27.1)	44(23.3)	92(25.2)	
	중독상태	2(1.1)	1(0.5)	3(0.8)	
	무응답	8(4.5)	15(7.9)	23(6.3)	
음주 중 흡연 여부	거의 안함	60(33.9)	165(87.3)	225(61.5)	127.3***
	거의 비슷	15(8.5)	2(1.1)	17(4.6)	
	평상시보다 심함	91(51.4)	15(7.9)	106(29.0)	
	무응답	11(6.2)	7(3.7)	18(4.9)	
음주 중 필립 끊기	전혀 없다	107(60.4)	114(60.3)	221(60.4)	6.157
	가끔 있다	64(36.2)	75(39.7)	139(38.0)	
	빈번 하다	6(3.4)	0(0)	6(1.6)	
전 체		177(100)	177(100)	366(1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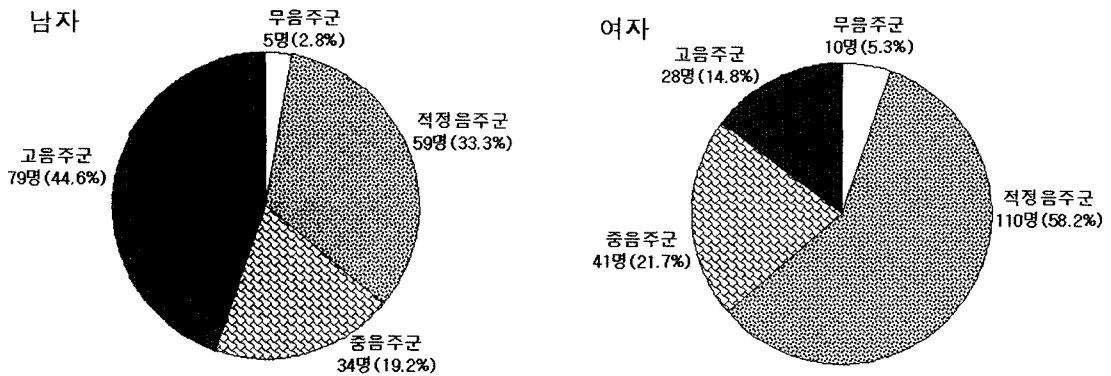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일 음주량에 따른 분포도

주일에 1회 이상 마시는 습관적 음주자는 남학생이 57.6%, 여학생은 27% 이었다. 더욱이 매일 술을 마시는 고도음주자도 조사대상자의 1.4%를 차지하였다($p<0.001$). 남녀를 비교해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 경험도 빠르고 음주 빈도도 유의적으로 높았다. 술을 마시는 동기는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이거나 개인적으로 기념할 일 때문이었고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대교협(매일경제신문, 1995)에서 실시한 대학생의 음주 이유는 친구 또는 선후배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가 3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냥 술이 좋아서와 술자리가 좋아서가 28.6%로 나타나 있어서 소위 사회적 사교 목적 보다는 아무런 생각과 이유없이 무의식적으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조사대상자의 과음하는 횟수 빈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많았다. 술을 마셨을 때 남학생은 30.5%가 안정감과 편안함, 여학생은 감정의 변화를 느낀다고 각각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p<0.01$). 술과 동시에 담배를 피우는 남학생이 단연 많았고, 이러한 결과는 평소 흡연을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음주시 흡연정도는 어떠한가를 알아 보았을 때 평소보다 많다는 응답자가 86.5%나 되어 음주와 흡연의 관련성이 매우 관련성이 크다는 김준숙, 안성숙, 김인숙(1995)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음주 중 필립이 끊어진(out-break) 경우는 조사대상자 중 38%가 가

끔 경험 했을뿐이고 나머지는 전혀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건대신문(중앙일보, 1995)이 남녀 건국대학교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음주경향을 물어본 결과 70%가 매주 한차례 이상 술을 마시며 2차 이상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필립이 끊길 정도라는 응답도 5%나 되었다.

음주자 대상으로 실시한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과는 12문항에 대한 질문에 답으로 '그렇다'라고 답한 것이 4항목 이상일 경우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남학생의 경우 62명, 여학생은 40명이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p<0.001$ 수준에서 남학생이 더 높았다(<표 7>).

5. 식행동에 관한 조사

전체 조사대상자의 식행동을 <표 8>에 제시하였다. 하루 세끼의 식사를 모두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남학생이 23.7%, 여학생이 25.4% 이었고, 나머지는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조사 결과는 여학생들이 특히 체중 감소를 위하여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남학생 보다 매우 높아서 절실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윤나, 최혜미(1994)의 보고와는 다르게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 식행동의 우수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결식의 정도, 식사 규칙성과 일일 식사 횟수 등이 사용되며 결식의 정도가

〈표 7〉 음주자의 알코올 의존도에 관한 분석

					N(%)
		남 학생	여 학생	전 체	χ^2 -value
자기 연민에 잘 빠지며 술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	예	84(48.8)	77(43.0)	161(45.9)	.441
	아니오	85(49.4)	94(52.5)	179(51.0)	
	무응답	3(1.7)	8(4.5)	11(3.1)	
혼자 마시는 것을 좋아 한다	예	7(4.1)	9(5.0)	16(4.6)	1.219
	아니오	162(94.2)	168(93.9)	330(94.0)	
	무응답	3(1.7)	2(1.1)	5(1.4)	
술 마신 다음날 아침 해장술을 마신적이 있다	예	27(15.7)	16(8.9)	43(12.3)	3.716
	아니오	142(82.6)	155(86.6)	297(84.6)	
	무응답	3(1.7)	8(4.5)	11(3.1)	
취기가 오르면 술을 계속 마시고 싶은 생각이 지배적이다	예	120(69.8)	112(62.6)	232(66.1)	2.195
	아니오	48(27.9)	59(33.0)	107(30.5)	
	무응답	4(2.3)	8(4.5)	12(3.4)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거의 참을 수 없다	예	31(18.0)	31(17.3)	62(17.7)	4.620*
	아니오	138(80.2)	140(78.2)	278(79.2)	
	무응답	3(1.7)	8(4.5)	11(3.1)	
최근에 취중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	73(42.4)	69(38.5)	142(40.5)	.416
	아니오	96(55.8)	102(57.0)	198(56.4)	
	무응답	3(1.7)	8(4.5)	11(3.1)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술이 해로웠다고 느낀다	예	53(30.8)	58(32.4)	111(31.6)	.061
	아니오	116(67.4)	113(63.1)	229(65.2)	
	무응답	3(1.7)	8(4.5)	11(3.1)	
술로 인해 작업기능에 상당히 손상이 있다	예	77(44.8)	59(33.0)	136(38.7)	5.100*
	아니오	92(53.5)	112(62.6)	204(58.1)	
	무응답	3(1.7)	8(4.5)	11(3.1)	
술로 인해 주위 가까운 사람이 나를 떠났거나 떠난다고 위협한다	예	26(15.1)	21(11.7)	47(13.4)	.825
	아니오	143(83.1)	150(83.8)	293(83.5)	
	무응답	3(1.7)	8(4.5)	11(3.1)	
술이 깨면 진땀, 손떨림, 불안이나 좌절 혹은 불면을 경험한다	예	17(9.9)	17(9.5)	34(9.7)	.959
	아니오	152(88.4)	154(86.0)	306(87.2)	
	무응답	3(1.7)	8(4.5)	11(3.1)	
술이 깨면서 공포나 심하게 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 했거나 혹은 헛것을 보거나 헛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다	예	103(59.9)	77(43.0)	180(51.3)	10.507**
	아니오	66(38.4)	94(52.5)	160(45.6)	
	무응답	3(1.7)	8(4.5)	11(3.1)	
술로 인해 생긴 문제로 치료 받은적이 있다	예	55(32.0)	57(31.8)	112(31.9)	.001
	아니오	114(66.3)	114(63.7)	228(65.0)	
	무응답	3(1.7)	8(4.5)	11(3.1)	
전 체		172(100)	179(100)	351(100)	

*p<.05 **p<.01

<표 8> 전체 조사대상자의 식행동에 관한 분석

N(%)

		남 학생	여 학생	전 체	χ^2 -value
하루 식사 섭취빈도	자주 끼니를 거른다	38(21.5)	50(26.5)	88(24.0)	.120
	가끔 끼니를 거른다	96(54.2)	90(47.6)	186(50.9)	
	3끼 모두 먹는다	42(23.7)	48(25.4)	90(24.6)	
	무응답	1(.6)	1(.5)	2(.5)	
한끼 식사량	조금	9(5.1)	14(7.4)	23(6.3)	5.234
	적당하게	79(44.6)	78(41.3)	157(42.9)	
	배 부르게	79(44.6)	77(40.7)	156(42.6)	
	과식 혹은 폭식	9(5.1)	19(10.1)	28(7.7)	
식사 속도	무응답	1(.6)	1(.5)	2(.5)	21.979**
	느리게	8(4.5)	35(18.5)	43(11.7)	
	적당하게	62(35.0)	79(41.8)	141(38.6)	
	빠르게	106(59.9)	74(39.2)	180(49.2)	
우울한 경우 많이 먹음	무응답	1(.6)	1(.5)	2(.5)	47.318**
	가끔 그렇다	42(23.8)	69(36.6)	111(30.3)	
	대체로 그렇다	16(9.0)	45(23.8)	61(16.7)	
	항상 그렇다	2(1.1)	12(6.3)	15(4.1)	
밤참 횟수	아니다	114(64.4)	62(32.8)	176(48.1)	21.044**
	무응답	3(1.7)	1(.5)	3(.8)	
	전혀 안 먹음	12(6.8)	27(14.3)	39(10.7)	
	일주일1-2회	102(57.7)	118(62.5)	220(60.1)	
TV, 비디오 시청시 중 식사	일주일3-5회 이상	45(25.4)	40(21.2)	85(23.2)	1.968
	매일 먹음	16(9.0)	2(1.1)	18(4.9)	
	무응답	2(1.1)	2(1.1)	4(1.1)	
	예	123(69.5)	120(63.5)	243(66.4)	
패스트푸드 이용정도	아니오	52(29.4)	67(35.4)	119(32.5)	19.304*
	무응답	2(1.1)	2(1.1)	4(1.1)	
	1주일에 2-3번이상	15(8.5)	22(11.6)	37(10.1)	
	일주일에 1번정도	30(16.9)	39(20.5)	69(18.9)	
	이주일에 1번정도	25(14.1)	54(28.6)	79(21.5)	
	한달에 1번정도	81(45.8)	12(6.3)	93(25.4)	
용돈 중 간식비 지출	기타	23(13.0)	61(32.3)	84(23.0)	3.078
	무응답	3(1.7)	1(.5)	4(1.1)	
	1만원 이하	29(16.4)	37(19.6)	66(18.0)	
	1-3만원	37(20.9)	46(24.3)	83(22.8)	
	4-5만원	44(24.8)	44(23.4)	88(24.0)	
	6-7만원	22(12.4)	29(15.3)	51(13.9)	
	8-9만원	11(6.2)	11(5.8)	22(6.0)	
9만원 이상	34(19.2)	21(11.1)	55(15.0)		
전 체	무응답	0(0)	1(.5)	1(.3)	
		177(100)	189(100)	366(100)	

*p<.05 **p<.01

낮을수록, 식사를 규칙적으로 할수록, 일일 식사횟수는 3회 정도 취하는 것이 우수한 식행동의 판정기준이 되고 있는데(송미숙, 1987), 본 조사대상자들은 높은 결식률로 식행동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대학생의 연구 결과에서도 주로 하루 1-2회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주로 아침을 결식하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식욕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등의 순 이었다(이윤나, 최혜미, 1994; 박영숙, 이연화, 현태선, 1995). 조사 대상자의 한끼 식사량은 42.9%가 적당하게 섭취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식사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이윤나, 최혜미(1994)의 연구에서는 비만군에서 여유있게 천천히 식사를 하지 못하고 빨리 먹는 습관이 비만과도 연관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만과의 관련성은 밝힐수 없었다. 우울한 경우 많이 먹는 빈도수가 빈번한가 라는 질문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의적으로 빈번하였다($p<0.001$). 정서적인 불안감은 식이섭취량 뿐만 아니라 음주 및 흡연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의 93.2% 이상은 일주일에 1-2회 이상 밤에 간식을 섭취하였으며 여학생보다

도 야식 횟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자의 66.4%가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식사를 하는 나쁜 식행동의 단면을 보여 주었다. 패스트 푸드를 이용하는 횟수도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많았으며, 조사대상자의 용돈 중 간식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50%가 1-5만원대를 소요하였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잦은 결식, 빠른 식사속도, 밤참 섭취와 패스트푸드 이용 횟수 증가와 같은 나쁜 식행동이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6. 음주와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전체 조사대상자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모의 음주와 흡연 및 술버릇에 대한 빈도조사와 함께 음주와 일반적인 사항, 음주력, 식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 전체 중 아버지의 음주율은 64.5%, 어머니는 29.2%였으며, 술을 드신 후 술버릇을 한 분이라도 갖고 있는 경우가 15.3%로 나타났다(<표 9>). 양친 모두 흡연하는 비율은 4.9%였으며 아버지만 피우는 경우가 48.6%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결과는 제

<표 9> 전체 조사대상자 부모의 음주와 흡연에 관한 분석

					N(%)	
		남 학생	여 학생	전 체	χ^2 -value	
음주여부	아버지	예	108(61.0)	128(67.8)	236(64.5)	4.324
		아니오	64(36.2)	53(28.0)	117(32.0)	
		무응답	5(2.8)	8(4.2)	13(3.5)	
	어머니	예	51(28.8)	56(29.6)	107(29.2)	.129
		아니오	118(66.7)	123(65.1)	241(65.9)	
		무응답	8(4.5)	10(5.3)	18(4.9)	
부모의 술버릇	예	25(14.2)	31(16.4)	56(15.3)	8.044*	
	아니오	92(51.9)	117(61.9)	209(57.1)		
	무응답	60(33.9)	41(21.7)	101(27.6)		
부모의 흡연	모두 피움	2(1.1)	7(3.7)	9(2.5)	7.415	
	아버지만	88(49.7)	90(47.6)	178(48.6)		
	어머니만	0(0)	4(2.1)	4(1.1)		
	모두 안 피움	87(49.2)	86(45.5)	173(47.3)		
	무응답	0(0)	2(1.1)	2(.5)		
전 체		177(100)	189(100)	366(100)		

* $p<.05$

시하지 않았으나 부모의 음주 여부, 술버릇, 그리고 흡연 여부와 조사대상자의 음주량과 알코올 의존도와 상관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음주와 흡연이 조사대상자의 음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음주자의 음주와 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는 <표 10>에서 처럼 음주량과 알코올 의존도 정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음주 섭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는 높았다($r=0.326, p<0.001$). 음주량과 학교생활의 만족도, 급우과의 관계, 가족의 화목도, 부모의 양육태도, 주위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의 정도,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 정도와는 상관성이 없었으나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화목도($r=-0.181, p<0.01$)와 삶의 만족도($r=-0.132, p<0.05$)가 낮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들은 슬프고,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외롭고 혼자라고 느낄 때, 때로는 강박적으로 항상 마시고 싶을 때 등 정서적인 영향이 술을 마시고 싶은 기분이 들게 한다는 사실과 다르게 음주와 정서적 영향과는 상관성은 조사되지 않았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음주자의 음주와 흡연과의 상관관계는 <표 11>에 나타내었다. 상습적 흡연 시기가 빠를수록($r=0.320, p<0.001$), 하루 흡연량이 많

<표 10> 음주자의 음주와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음주량	알코올 의존도	학교생활 만족도	급우와의 관계	가족의 화목도	부모 양육태도	사랑받는 느낌	삶의 만족도
음주량								
알코올 의존도	.326***							
학교생활 만족도	.10	.095						
급우와의 관계	-.26	-.007	.225***					
가족의 화목도	.074	-.181**	.193***	.213***				
부모의 양육태도	-.016	.055	.097	-.004	.147**			
사랑 받는 느낌	.71	-.061	-.155*	-.207***	-.278***	-.107*		
삶의 만족도	.45	-.132*	-.236***	-.197***	-.245***	-.015	.411***	

* $p<.05$ ** $p<.01$ *** $p<.001$

<표 11> 음주자의 음주와 흡연과의 상관관계

	흡연여부	상습적 흡연시작	하루 흡연량	흡연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흡연후 건강상태	흡연 후 체중변화	여성흡연	음주량	알코올 의존도
흡연여부									
상습적 흡연시기	.602***								
하루 흡연량	.861***	.740***							
흡연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267***	.028	-.171*						
흡연 후 건강상태	.017	.028	.144	.177*					
흡연 후 체중 변화	.009	-.001	-.011	.033	.120				
여성 흡연	.068	.040	.078	-.060	.023	.019			
음주량	-.357***	-.320***	.386***	.044	.235**	-.054	-.027		
알코올 의존도	-.297***	-.282***	.292***	.091	.159	-.044	-.031	.326***	

* $p<.05$ ** $p<.01$ *** $p<.001$

($r=0.386, p<0.001$), 그리고 흡연 후 건강 상태가 나빠다고 느낄수록($r=0.235, p<0.01$) 음주량이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와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역시 음주량과 동일한 경향의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서 음주와 흡연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음주자의 음주와 식행동과의 상관관계는 <표 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하루 식사섭취빈도 수($r=-0.121, p<0.001$)가 적을수록 음주량이 많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우울한 경우 많이 먹는 빈도수($r=0.130, p<0.05$)나 밤참 먹는 횟수가 높은 경우,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보는 경우 음주량 역시 증가되었다. 그리고 간식비 비용이 높을수록 음주량이 많은 양의 상관관계($r=0.235, p<0.001$)가 있었다. 음주는 경제상태외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Simko(1982)와 Nicolas, Etruch, antunez, Scanella & Ungarono-Marquez(1998)는 중상류층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와 정상인의 식사섭취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으나 Goldsmith, Iner & Miller(1983)는 하류층에서는 정상인 보다 알코올 중독자의 식사상태가 유의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알코올 중독자의 영양상태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전체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흡연량이 많거나 흡연시기가 빠를수록, 그리고 결식률과 불규칙한 식사,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 식사 도중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보는 경우, 간식비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등 좋지 못한 식행동을 할수록 음주량이나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흡연과 알코올 섭취 수준이 높고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이 부족한 대학생의 흡연, 음주 그리고 식행동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진단하여 대학생의 올바른 식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경산지역 남녀 대학생 366명(남자 177명, 여자 18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일반적인 사항, 흡연과 음주특성, 식행동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음주자의 음주와 식행동과의 상관관계

	하루식사 섭취빈도	한끼 식사량	식사속도	우울시 많이 먹는 경향	밤참 횟수	TV, 비디오 시청 중 식사	간식비	패스트푸드 이용정도	음주량
하루 식사 섭취빈도									
한끼 식사량	.151**								
식사속도	-.040	-.016							
우울시 많이 먹는 경향	.023	-.036	.035						
밤참 횟수	-.072	.072	.126*	.048					
TV,비디오	.025	.104*	-.051	.009	.186***				
시청 중 식사									
간식비	.133*	.043	-.017	-.068	.186***	.104*			
패스트푸드 이용정도	.009	.036	-.060	.100	.048	.030	-.135**		
음주량	-.121***	.068	.067	.130*	.085	-.70	.235***	.040	

* $p<.05$ ** $p<.01$ *** $p<.001$

조사대상자 부모 연령대는 주로 40대-50대로 고졸이 대부분이었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어머니보다 높았다. 직업의 종류는 아버지는 노무 및 기술직, 판매 및 서비스, 사무직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고 어머니의 경우 53.4%가 직업을 갖고 있었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월 평균 180만원 이하와 180-230만원이 각각 50% 정도로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고, 가족수는 3-4인으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는 월 평균 6-20만원 정도의 용돈을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이 양친과 함께 동거하였다. 정서적인 면에서는 만족감을 느끼며 부모의 양육태도도 민주적이고 수용적인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 흡연율은 여학생보다 높았고 상습적인 흡연시작 시기도 대부분 고등학교 이전부터 시작하였다. 호기심이나 친구권유가 흡연의 주 동기가 되었으며 흡연 후 건강상태가 남학생이 유의성 있게 나빠졌다고 생각하였다. 니코틴 의존도 점수는 남학생은 평균 3.99점이고 여학생은 3.75점으로 의존도는 낮았다. 조사대상자의 첫 음주는 대부분 고등학교 이전에 이루어졌고 하루 평균 음주량은 남학생 33.9g, 여학생 18.5g이었다. 상습적인 음주자는 12.6%로 조사되었고, 음주의 주동기는 호기심이나 친구와 어울리기 위함이었다. 과음 횟수가 높은 남학생은 술을 마시면서 편안함을 느낀데 반해 여학생은 감정의 변화를 많이 느꼈다. 남녀 비교 결과 첫 음주 경험, 음주 빈도, 음주 동기, 과음 하는 횟수 그리고 술을 마시면 신체에 나타는 행동변화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남학생은 62명, 여학생은 40명으로 $p<0.001$ 수준에서 남학생이 더 많았다.

음주와 각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흡연자가 상습적 흡연을 빨리 시작했을수록($r=0.320$), 하루 흡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r=0.386$), 흡연 후 건강상태도 나쁘다고 느낄수록($r=0.235$) 음주량과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음주와 식행동과의 상관관계는 하루 식사섭취빈도 수가 적을수록 유의적으로 음주량이 많은 음의 상관관계($r=-0.121$)를 보였으며, 우울한 경우

많이 먹는 빈도수($r=0.130$)나 간식비의 비용이 높을수록 음주량과 양의 상관관계($r=0.235$)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경산지역 대학생은 높은 흡연과 음주율을 갖고 있는 동시에 잦은 결식율이나 빠른 식사 속도와 같은 올바른지 못한 식행동을 보였으며, 흡연과 음주 그리고 식행동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올바른 음주와 식행동 개선을 위한 꾸준한 영양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경빈, 한광수, 이정국, 이민규, 김유광, 김철규 (1991). 한국형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연구(Ⅲ). 신경정신의학, 30, 569-578.
- 김경희, 최삼섭(1979). 일부 도시 남대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 대한보건협회지, 5(1), 41-49.
- 김명희, 유옥순(1999). 알코올 섭취자와 비섭취자의 혈청지질 수준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영양학회지, 32(5), 570-576.
- 김영란(1999). 대학생의 음주 습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협회학술지, 25(2), 24-33.
- 김용석(1999). 국내외의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도구의 비교를 통한 한국성인의 알코올 사용장애에 관한 역학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7, 67-88.
- 김운주(1986). 대학생의 음주생활에 대한 연구. 충북대학교 논문집, 31, 539-553.
- 김준숙, 안성순, 김인숙(1995). 20대의 음주생활에 관한 연구. -청주지역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4(1), 113-122.
- 류은순(1993). 부산지역대학생들의 식생활행동에 대한 조사. 한국식생활과학회지, 8(1), 43-54.
- 매일경제신문(1995. 9. 20 일자)
- 박영숙, 이연화, 현태선(1995). 거처별로 비교한 대학생의 식생활관리 형태. 식생활문화학회지, 10(5), 391-404.
- 송미숙(1987). 여대생에 있어서 흡연양상과 흡연이 영양섭취 및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 내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교육학회지, 4(2), 71-94.
- 이기완, 이영미(1995).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대학생의 식생활 관련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10(2), 125-132.
- 이미숙, 우미경(1999). 교양영양학 강좌 전후의 대학생의 식습관, 영양지식 및 영양 태도 변화. 한국영양학회지, 32(6), 739-745.
- 이성숙(1996). 향산화성 비타민 보충급여가 흡연자의 식품 섭취 및 혈액성상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윤나, 최혜미(1994). 대학생의 체격지수와 식습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1), 1-10.
- 전예숙, 최미경, 김미현(2002). 충남지역 대학생의 알코올 섭취가 영양섭취상태에 미치는 영향.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8(3), 240-249.
- 조성진, 서국희, 남정자, 서동우, 조맹제(1998). 알코올의존 고의심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위험요인분석. 신경정신의학, 37, 1186-1200.
- 중앙일보(1995. 4. 27 일자)
- 최미경, 전예숙, 김애정(2001). 충남지역 일부 남자 대학생의 알코올 섭취수준에 따른 식행동 및 영양섭취 상태 비교연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0(5), 978-985.
- 최면, 김종대, 김성실(1996). 뇌졸중 환자 가족의 음주, 흡연 및 가족 병력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5(6), 1050-1054.
- 최은영, 임영신, 김규남, 박정용, 김현주, 조비룡, 이성희, 유태우, 허봉렬(1998). 한국인의 음주양태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9(10), 858-869.
- 통계청(2000). 통계연보
- Davidson DM. (1989). Cardiovascular effects on alcohol. *West. J. Med*, 151, 430-439.
- Freeman DJ, Packard CJ. (1995). Smoking and plasma lipoprotein metabolism. *Clinical Science*, 89, 784-788.
- Goldsmith RH, Iber FL, Miler PA. (1983) Nutritional status of alcoholics of different socioeconomic class. *J Am Clin Nutr*, 2, 215-220.
- Nicolas JM, Etruch R, Antunez E, Scanella E, Ungarano-Marquez A. (1998). Nutritional status in chronically alcoholic men from middle socioeconomic class and its relation to ethanol intake. *Alcohol & Alcohol*, 28, 551-558.
- Simko V, Connell AM, Banks B. (1982). Nutritional status in alcoholics with and without liver disease. *Am. J. Clin. Nutr.* 35, 197-203.
- Steven PS, Lewayne DG. (1986). Prevention tobacco use among young people. *Health and Social Work*, 11(1), 59-67.

(2003년 10월 18일 접수, 2004년 4월 14일 채택)